이긴자 일대기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21회〉

# 젊음을 불태운 11년의 군장교 생활

3절: 인봉된 성경을 여는 주인공
1) 성경 속에 감춰진 구원의 비밀
2) 육신의 기원은 선악과
3) 하나님의 생사가 걸린 문제

4절: 희생으로 사망을 이긴 피
1) 제주도 훈련병 시절
2) 광주 상무대 훈련소에서
3) 젊음을 불태운 11년의 군장교 생활
4) 일동 중,고등학교를 세우다

## 3) 젊음을 불태운 11년의 군장교 생활

광주 상무대에서 6개월 동안 그 모진 훈련을 마치고 1954년 5월 1일자로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임관이 되어, 동료들은 거의 일선 소대장으로 배치를 받았으나, 일곱째 천사는 훈련 성적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특출했으므로 대대 작전 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포천군 사창리에 있는 28사단 82연대 3대대였습니다. 이미 9개월 전에 판문점에서 휴전협정(1953. 7. 27)이 체결되어 일선에서 교전 중에 전사할 운명은 비껴간 것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민들을 구원할 사명을 가진 일곱째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일들을 주장하신 증거입니다.

이제 스물네 살이 된 일곱째 천사는 작전 과장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틈나는 대로 사병들에게 공산주의의 정체에 대해 정신 교육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상부에 인정되어 일곱째 천사는 소위 계급으로서 중·소령이 담당하는 연대 정훈과장으로 발령이 났던 것입니다.

그때는 고향이 그리워 탈영하거나 고된 병영 생활을 이기지 못하여 월북하는 사병들이 많을 때였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정훈과장으로서 연대내 전 사병들을 상대로 일곱째 천사 그 자신이 대학생 신분으로 직접 포로가 되어 빨갱이들에게 당한 경험담과 공산이론의 허구성에 대해 설명해 주니 월북하는 사병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시간이 끝나면 연대 내에서 전쟁과 가난 때문에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사병들을 모아 중·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배우려는 사병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난 일곱째 천사는 어려서부터 33세에 육군 중위로 제대할 때까지 굶주리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밥을 먹어도 일곱째 천사는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소년기의 일제시대에는 양곡 배급제이므로 보릿고개 때는 죽을 쑤어 먹으면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28사단 중고등반 책임장교 조희성님(원안의 사진)과 군인 학생들 _ 2회 졸업기념사진 1957. 7. 13

### 허약한 사병을 위해 장교식사를 양보

또한 남북전쟁 직후 군대에서는 장교식단에 쌀밥과 고깃국이 나왔지만 사병들은 보리밥에 소금국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몸이 약한 부하들에게 자신에게 오는 장교식사를 주고 대신 보리밥에 소금국을 먹었습니다. 또 너무 배고파하는 부하가 있으면 나는 밥 생각이 없다고 하고 보리밥마저 주어버리고 배고픔을 참았던 것입니다. 연락병은 자신의 장교 얼굴이 형편없이 수척해지자 "장교님, 이러다가 큰 일 나겠습니다. 제발 우리가 타온 식사를 하십시오."라고 하였지만, 일곱째 천사는 걱정해주는 말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나는 괜찮다. 병들고 허약한 사병들에게 나에게 오는 밥을 갖다 주어라."하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일곱째 천사는 11년간의 군인 장교생활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장교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곱째 천사가 이긴자가 되기까지는 하루 이틀에 걸려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는 군인장교로서 중대장의 신분으로 병사들이 잠든 밤에 화장실 청소를 하였습니다. 짚을 새끼로 꼬아 물에 적신 다음 모래를 묻혀 지린내 나는 변기를 닦았습니다. 한번은 밤중에 오줌이 마려 화장실에 온 병사가 자신의 장교님이 변소청소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곱째 천사는 그 병사에게 이 사실을 부대원에게 알리면 혼을 내겠다고 엄포를 주면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 중 아무도 청소를 하지 않았는데, 화장실이 깨끗이 청소된 것을 이상히 여겨 저들끼리 교대로 불침번을 서면서 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네 상관이 되는 중대장이 화장실 청소하는 것을 보고, 전원이 몰려와서, "중대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청소하겠습니다."하고 말렸습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천사가 소속된 부대는 어느 타 부대보다 모범적인 부대가 되었습니다. 부대 막사를 지을 때에도 중대장이 직접 연장을 들고 일을 하게 되니, 다른 부대보다 훨씬 빨리 짓고 타 부대에 막사 짓는 것을 지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 깨끗한 장교

한편 28사단 관할 지역 내 야산에는 울창한 나무가 많이 들어 서 있었습니다. 사단에서는 필요한 사단 건물과 진지 등을 짓기 위한 자재 용도로 인근 산의 나무를 벌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맡은 장병들이 하나같이 나무를 시중에 내다 팔아서는 착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장은 부정을 하지 않을 만한 깨끗한 장교를 물색하느라 고심한 끝에 일곱째 천사를 적임자로 보고 그곳의 책임장교로 임명하였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현지에 부임하자 선임하사는 "장교님은 이런 데 오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방을 하나 얻어 주면서 편히 있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에 돈뭉치를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냐고 추궁하니 나무를 내다 팔고 남은 돈의 일부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원래 불의라면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그 돈이 부정으로 마련된 돈이며, 선임하사가 주도해 이런 부정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일곱째 천사는 선임하사를 영창에 보내도록 사단장에게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82연대 정훈과장 조희성님과 군인 학생들

그리고는 일곱째 천사는 직접 벌목 작업을 지휘하고 감시하여 이후부터는 한 치의 부정이 없게 하였습니다. 사단장은 그만한 일로 선임하사를 영창에까지 보낼 것까지 있느냐고 만류하였지만 일곱째 천사는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로 해서 사단장은 일곱째 천사를 깊이 신임하게 되었습니다.

### 배움의 기회를 주는 일곱째 천사

82연대 정훈과장 일곱째 천사가 공부 못한 사병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 호응도가 매우 좋다는 것을 들은 사단장은 어느 날 일곱째 천사를 불렀습니다.

"자네, 소원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주겠네."

"제게 소원이 있다면, 장교로서 맡은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남는 시간에는 사단 내에 전쟁으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병들에게 공부를 시켜주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게 소원인가? 음, 그러면 자네를 사단 중·고등반 책임 장교로 임명해 줄 테니, 사단내의 공부 못한 사병들을 가르쳐 주게."

이렇게 해서 근무시간에 사단 내 군인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인근 민가에까지 소문이 나, 민간인 청년들이 몰려와 자기네들에게도 공부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장의 허락을 받아 근무 시간이 끝나면 부대 밖에 나가 민간인 학생들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천사는 군대식으로 엄하게 가르치므로 70% 이상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중·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하여 당시 신문에도 크게 난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박한수

# 21일 만에 성도(成道)하기 〈7일째〉

영생의 도는 딱 21일만 제대로 하면 완성이 된다. 더도 덜도 없이 오직 21일이다. 21일만 부처님을 사모하고 놓치지 않으면 부처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21일만에 성도하기'라는 글을 쓰기로 하였다. 필자는 21일간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줄 것이다. 그대로 따라만 하면 누구나 부처를 이룰 수 있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 – 편집자 주

### 생미륵부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

21세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생미륵부처님을 찾아야 한다. 북방불기 3천년이 되어 우담화가 피는 곳에 생미륵부처님이 출현한다는 불경의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인간을 올바르게 정의하면 반쪽은 마구니요 반쪽은 부처님(하나님)이다. 그런데 현재 인간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마구니라는 사실이다.

생미륵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의 영육을 지배하는 마구니는 '나(我)'라는 주체의식으로 행세하면서 생명(生命)이자 양심(良心)이 되는 부처님(하나님)을 마구니의 종으로 부리면서 오욕(재물욕·명예욕·식욕·수면욕·색욕)과 칠정(희喜;기쁨, 노怒;분노, 우憂;근심, 구懼;두려움, 애愛;사랑, 증憎;증오, 욕欲;욕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我)'라는 주체의식이라는 마구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들 중에서 생미륵불 앞에 나아가기를 무서워하는 자들도 생기고 생미륵불을 죽이려고 덤비는 자들도 생기는 이유는 생미륵불께서 감로(甘露)를 내리시어 '나'라는 마구니를 살찌우는 오욕칠정(五慾七情)을 제거하는 데에 대한 반발심 때문으로 보인다.

생미륵불은 말세를 이루는 주인공이기에, '말세(末世)'라는 글자 그대로 끝 말(末)자, 인간 세(世)자, 다시 말해서 인간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는 고로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들의 원수로 보이는 것이다. 진실은 인간의 반쪽이 되는 '나(我)'라는 주체의식이라는 마구니를 없애버리니까 또 다른 인간의 반쪽이 되는 부처님(하나님)만 순수한 모습으로 복원되는 것이다. 그런즉 생미륵불이 모든 인간들을 부처님(하나님)으로 만듦으로써 인간들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세상 곧 부처님(하나님)만이 사는 세상이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진정한 말세(末世)요, 말세가 곧 부처님(하나님)만이 사는 극락세계 곧 천국임을 알 수 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 감로가 곧 생미륵부처님의 분신이요 영생체

그럼 생미륵불께서 우리들 속에 부처님(하나님)을 무엇으로 어떻게 중생(重生; 부활)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부처님)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구세주가 감로이슬성신이 되는 분신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분신은 승리의 영이에요. 이제 그대로 마귀한테 지는 그런 약한 영이 아니에요. 아무리 강한 마귀라도 전부 소멸시켜버리고 없앨 수 있는 강한 영이에요. 이 감로의 정체, 감로에 대한 성품을 세밀히 설명한 자는 6천년 인류 역사이래 한 사람도 없었어요. 감로의 주인공이라야 이것을 아는 거지, 주인공이 아니면 감로가 구세주의 분신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감로가 내리는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늘 보여주면서 말을 해도 그래도 바로 그 감로가 하나의 은혜인양, 보통 은혜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감로이슬성신이 이 사람의 분신인고로 감로 자체가 구세주예요. 감로 자체가 영생이에요. 영생체예요." – 2001년 10월 21일 말씀 중에서

감로(甘露)가 생미륵부처님의 분신(分身)이라는 것을 불경에서 입증하고 있는데, 〈화엄경 26권〉에, "일념분신편시방 감로우멸번뇌(一念分身編十方 甘露雨滅煩惱; 한 생각하는 순간에 분신으로 우주에 가득차서 감로를 비처럼 내리시니 중생들의 번뇌가 소멸된다)"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증산(甑山) 강일순 선생의 중화경(中和經) 81장 미륵출세 장(章)에도, "태양같은 생미륵불이 나타나시는 날에 법(法)의 비와 이슬을 내리시니 세상 사람들의 안목이 이제야 열리기 시작하는지라. 인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알아서 찾아오리니, 좋은 도(好道)는 모든 인간들을 부처님으로 바꾸어 놓게 하여 그 바꾸어진 부처님이 인간사를 완성시키리라(佛日出時에 降法雨露하리니 世間眼目이 今玆始開하리라. 有緣者는 皆悉聞知하리니 好道遷佛하야 佛成人事하라)."고 하였다.

### 유사이래 어느 누구도 하나 되는 비결을 논하지 못했다

한편 감로해인을 들고 나오는 분이 구세진인이요, 유불선 합일대도를 이루는 정도령인데, 구세진인이나 정도령은 모두 생미륵부처님 한 분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미륵부처님은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가게 한다는 만법귀일(萬法歸一)을 이루는 주인공이다. 생미륵부처님은 "하나 속에 천국에 있고 하나 속에 하나님(부처님)이 있고 하나 속에 영생이 있다."고 설파하신다. 그런데 유사이래(有史以來) 어느 누구도 하나 되는 비결을 논한 자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생미륵부처님은 "이 세상에는 학문도 없었고 종교도 없었다."고 하시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는 잠언의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마음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썩지 않고 늙지 않는, 즉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 진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의 마음이요, 그 하나의 마음이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이다.

나의 핏줄을 타고 올라가면, 하나의 조상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핏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한 분의 조상'으로 귀결된다. 여기서 '한 분의 조상'이 곧 '하나'이며 '하나'에다 존경할 '님'자를 붙이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예컨대 오늘날 70억의 인류가 마치 한 뿌리 한 나무에서 뻗어 나온 70억의 가지와 같다. 나무는 동쪽으로 뻗은 가지가 서쪽으로 뻗은 가지더러 남이라고 하여 싸우거나 서로 부러뜨리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한 조상을 뿌리로 두고 있지만, 서로를 남이라고 하여 미워하며 심지어 죽이기도 한다.

진실로 누구든지 내 몸인데, 남의 몸으로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이 잘못된 마음 때문에 인간이 죽는다. 비진리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생명을 이루고 있는 피가 썩어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다.

### 인류를 하나로 만드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따라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는 인류의 구원 메시지! 이것은 승리자 하나님이신 생미륵부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지구파멸로 치닫는 길에서 멈추어 서게 하고 오염되지 않는 천국의 환경을 조성하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한 것이다.

인류를 하나로 만드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라는 이 말씀이 원자탄 억천만개보다 더 위력이 있고, 유토피아를 꿈꾸는 마르크스, 엥겔스 사상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위대하고 완전한 지상낙원을 이룰 진리요, 현실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무한한 힘을 가진 존재의 말씀이라는 것을 온 천하 만민들이 곧 깨달게 될 것이다.*

박태선 기자